

일자리·저출산 해결...지역발전 새 모델 제시

광주시, 한국정책대상 정책상 수상

광주형일자리 성사 내년까지 고용 1만명 창출

이용섭 시장 “변화·혁신으로 미래 여는 일 매진”

광주시가 일자리 부족,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사)한국정책학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각 지자체들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사)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한 정책사례와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7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등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저출산 극복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책상을

수상했다.

시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다. 첫 성과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에서 오는 15일부터 경형 SUV 캐스퍼가 본격 양산된다. 자동차 공장 완공으로 현재까지 540여명의 직원이 채용됐고, 내년까지 4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간접 일자리도 1만여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기업 유치에도 성과를 내는 등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갖춘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 (2020~2024)를 조성하고, 111개 인공지능기업 업무협약 체결, 62개 기업 법인 또는 사무소 개소 등 인공지능 전문

광주시는 전국적인 출생률 감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들을 펼쳐왔다.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이상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중심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등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키고, 떠나는 광주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일에 도전했다”며 “광주시의 변화와 혁신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광주 미래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단 정기회의가 9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김종석 대한민국신문협의회 회장과 전남매일 김선남 대표이사 등 회원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연내 상시법화 해야”

대신협 사장단회의, 내년 대선 공동기획 등 논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방법)의 상시법화가 연내 이뤄져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신협은 9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설해원에서 제3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년 한시법으로 돼있는 지방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지방법이 상시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앞두고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등을 적시한 의견서를 문제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 입법 및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지역신문사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ABC실사 수용여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0대 대선 공동기획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대신협은 코로나19 관련, 지역신문지원 촉구 건의문을 지난 7월 1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발송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종석 사장을 비롯해 전남매일 김선남 대표이사,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김성의 사장, 무등일보 장인균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이 시장, 음식문화거리 찾아 상인 애로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 동구 대인동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상을 직접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음식문화거리 방문은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특별주간'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날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

는 광주식당, 수제화 상가 광명제화 등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애로사항들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제2의 예술의거리 지정 및 지역예술인과 상인 협업 지원사업 확대, 골목형 상점가 등록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조기철 기자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하라”

도, 부족한 홍수 조절량·댐운영 미흡 원인 지적

전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을 근본 원인으로 파악,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000만 톤(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

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해, 일시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섬진강댐 재개방 사업 당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한 것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수해민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

책으로 ▲댐과 하천 연계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요구기로 했다.

이외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시, 국토부 스마트 교차로 구축 선정

국비 12억원 확보 사암로 등 25곳 시스템 구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국고보조 공모사업'에서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송정역과 광산 IC를 잇는 남북방향의 사암로 일부구간(도천마을입구삼거리~하남농협사거리 4.8km) 교차로 10곳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구 장산초등학교 등 15곳에 좌회전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국토부가 12억원, 광주시가 18억원을 부담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완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교차로 대상은 기존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 및 단일로를 제외한 주요도로 중 교통 혼잡 발생빈도와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다.

무인자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실증지구 도로축이며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서 구축 중인 하남산단 6번 스마트 교차

로 1곳과 연계를 통한 실시간 신호운영이 가능한 사업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에 방향별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해 카메라가 스스로 탐지된 알고리즘 학습기간을 거친다. 이어 영상 분석을 통해 자동차 속도, 차량종류, 대기행렬 등을 감지해 실시간 교차로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실시간 신호체계를 생성해 교차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좌회전 감응신호 시스템은 신호교차로에서 부도로의 진·출입 차량이나 주도로의 횡단보행자를 감지해 꼭 필요한 신호만을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주도로에 녹색시간을 부여하는 신호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감소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신호 시스템이다. /황애란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절어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